

주요 주간 동향 리스트

2021년 1월 2호

◆ 주요 동향

1. 텐진항, 세계 최초의 재래식 컨테이너 터미널 자동화 프로젝트 전면 운영 개시
全球首创传统集装箱码头全流程自动化升级改造项目在天津港全面运营
2. 중국, “코로나19 백신 도로운송 기술 지침” 발표
多部门联合印发《新冠病毒疫苗货物道路运输技术指南》
3. 2020년 중국의 건화물 수입량 전 세계 시장의 50% 육박
2020年中国进口占全球干散货市场近50%
4. 산둥항만, “일대일로” 및 RCEP 노선 집중 개통
山东港口集中开通3条青岛港“一带一路”及RCEP航线
5. Ningbo Ocean Shipping사 첫 동남아 컨테이너 정기노선 정식 개통
宁波远洋首条东南亚集装箱班轮航线正式开通
6. 2021년 첫달 난사항 3번째 노선 개통
开门红! 2021年首月南沙港区迎来3条新航线
7. 양산특수종합보세구 전 구역 세관 검수 통과
洋山特殊综合保税区实现全域封关验收
8. 중국 동해항해보장센터, “연해입항 안내(동해해역)” 발행
我国东海海区船舶“进出港攻略”发行

* 본 주요 동향은 중국의 주요 언론 기사를 번역한 내용임

◆ 기타 동향

9. COSCO Shipping Energy Transportation, 3척의 아이스클래스급 LNG선 건조에 9.2억달러 투자
中国企业投9.2亿美元建造3艘冰级LNG船
http://www.ship.sh/news_detail.php?nid=40885
10. 광둥성 항로 발전계획(2020~2035) 발표
《广东省航道发展规划 (2020—2035年) 》正式出台
<http://www.zgsyb.com/news.html?aid=580040>
11. CMPort, 2020년 컨테이너 처리실적 1.22억TEU 기록
招商港口实现集装箱吞吐量1.22亿标准箱
<http://www.chinaports.com/portlspnews/6839>
12. 광시 베이부완항, 세계 40위 컨테이너항으로 부상
广西北部湾港跻身全球港口40强
<https://www.chinanews.com/cj/2021/01-24/9395264.shtml>
13. 2020년 장쑤성 항만의 AMP 이용 선박 2017년 대비 6배 증가한 9.5만척 기록
2020年江苏岸电使用9.5万艘次 相比2017年增长6倍
<http://www.zgsyb.com/news.html?aid=580789>
14. COSCO Shipping과 보쉬 협력 중~유럽 전용 블록트레인 정식 운행 시작
中远海运-博世中欧班列首列专列正式运行
http://www.coscoshipping.com/art/2021/1/20/art_6864_185896.html
15. 허마 기술회사 설립, 경영범위는 식음료 관리 등 포함
盒马成立上海集祥盒意技术有限公司 经营范围涉及餐饮管理等
<http://finance.eastmoney.com/a/202101271791538032.html>

작성자 : 장형원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육천연 중국연구센터 연구원

김은우 중국연구센터 부연구위원

감수자 : 한광석 중국연구센터 센터장

(kmishanghai@naver.com/+86-21-6090-0395)

텐진항, 세계 최초의 재래식 컨테이너 터미널 자동화 프로젝트 전면 운영 개시

- 2021년 1월 17일, 텐진항 최초의 재래식 컨테이너 터미널의 완전 자동화 개조 프로젝트가 전면 운영에 돌입하였음
- 자동화 터미널은 항만 발전에 필연적인 추세이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완전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은 10여개에 불과함
 - 대부분의 자동화 터미널은 새로 지어진 터미널이거나 야드만 자동화된 세미 자동화 터미널임
- 기존의 자동화 터미널 솔루션으로는 재래식 터미널을 완전자동화 터미널로 개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가운데, 텐진항이 가장 먼저 기존 터미널 개조에 성공한 것임
 - 텐진항은 먼저 야드 크레인을 자동화로 개조한 후, 베이더우(北斗) 시스템, 5G통신, 원격 제어 운전기술을 도입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전기트럭 운행을 실현함
 - 뿐만 아니라 레이저 스캐닝 시스템, 6축 로봇 등을 응용한 컨테이너 스마트 잠금해제 구역을 도입함
- 현재 크레인 당 작업효율은 31Move/h에 달하고 전체 작업효율은 20% 가까이 증가함
 - 컨테이너당 에너지 소비량은 20%, 인원 투입은 60%, 종합 운영원가는 10% 감소함
- 한편, 현재 텐진항 C구역에 신설하고 있는 완전자동화 터미널도 같은 날 부분 운영에 들어감
 - 이미 완성된 1번 선석 외, 현재 60%가 건설된 상태로 연내에 설비 설치 후 완공될 예정임
 - 전체 설비 모두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며, 스마트 빌딩 및 통로에 태양광 발전 방식을 적용해 항만 자원의 에너지 절약과 재사용 비율을 현저히 높였음

(中国新闻网, 2021. 1. 17.)

<http://www.chinanews.com/gn/2021/01-17/9389644.shtml>

중국, “코로나19 백신 도로운송 기술 지침”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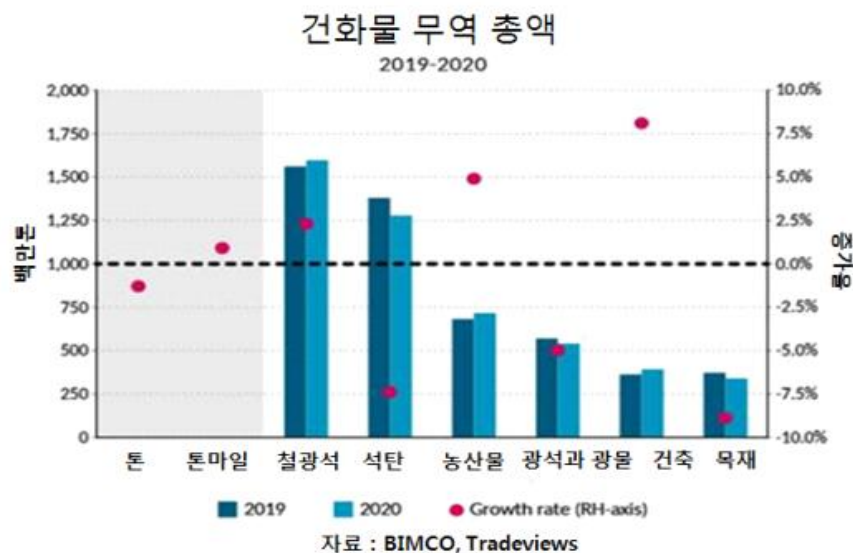
- 최근 중국 교통운수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해관총서(세관),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 도로운송에 관한 기술 지침(新冠病毒疫苗货物运输技术指南)”을 발표함
 - 본 지침은 코로나19 백신을 도로운송으로 수하인(CDC 또는 접종기관)에게 수송하는 경우 적용되며, 수출용 백신의 경우에는 국무원의 관련 요건도 준수해야 함
- 지침은 코로나19 백신 송하인, 운송인, 근로자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명시함
 - 송하인은 운송 통지, 포장 준비, 라벨링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백신 도로운송 준비작업을 해야 하며, 포장은 관련 요구사항 및 운송요건에 부합해야 함
 - 포장물에 드라이아이스, 리튬 배터리 등과 같은 위험물이 내장된 경우 위험물 운송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함
 - 운송인은 코로나19 백신의 도로운송을 위해 문서, 냉장 트럭 및 장비 준비, 인력 배치 등 상응하는 준비작업을 해야 하며, 실제 운송인은 임의로 운송을 하청줄 수 없음
 - 코로나19 백신 도로운송 관련 기업은 근로자의 안전 보호, 핵산 검사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해야 함
- 지침은 또 코로나19 백신 운송 프로세스와 관련해 다음의 요건을 명시함
 - 운전자는 반드시 발차 전에 제냉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도어 쉘이 밀봉되었는지, 밴(컨테이너) 문이 잠겼는지, 주행온도기록계가 정상 작동하는지,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해야 하며, 상기 중 어느 하나라도 이상이 있는 경우 발차하지 말아야 함
 - 코로나19 백신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목적지로 운송해야 하고, 필요한 하역 외에는 도중에 밴(컨테이너)을 오픈하거나 장시간 정차하지 말아야 하며,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행해 기복과 진동을 최소화하고 운전자는 연속 운전을 4시간 이상 하지 말아야 함
 - 운송 중 냉장 차량, 냉장컨테이너 또는 보온컨테이너 내부 온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록해야 하며,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자체 또는 제3의 약품 추적관리 플랫폼에 온도 및 위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함
 - 밴(컨테이너) 온도에 이상 경보가 작동하는 경우 운전자는 즉시 검사를 수행하고, 허용 범위 내에서 온도조절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해당 경보정보를 적시에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관련 책임자는 운전자가 온도 이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시에 지도·감독해야 함
 - 지역 교통관리 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는 녹색통로를 마련해야 함
 - 수출용 코로나19 백신의 국내운송 과정에서 통관 시 코로나19 백신 화물 수출운송장을 자발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해당 수출운송장 소지자에 대해서 세관은 우선 검사를 실시해 통관 편의를 제공함

(中国水运网, 2021. 1. 26.)

<http://www.zgsyb.com/news.html?aid=580508>

2020년 중국의 건화물 수입량 전 세계 시장의 50% 육박

- 2020년 중국의 건화물 수입량은 톤해리 기준으로 전 세계 건화물 시장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8.5%를 차지함
 - 이는 전년 대비 3.8%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전 세계 건화물 운송분야에서 중국이 주도적인 지위가 보다 강화됨
 - 2020년 중국은 건화물 수요 강세로 수입량이 9530만 톤(+5.2%) 늘었으며, 이중 철광석과 대두의 수입량이 각각 7.1% 및 12% 증가했음



- 전 세계 건화물 시장의 경우 2020년 철광석, 석탄 및 농산물 등 3대 주요 품목 중 석탄의 해상 수송량만 감소함
 - 석탄 수송량은 2019년보다 1.022억 톤(-7.4%) 줄었고 철광석과 농산물 수송량은 각각 3,690만 톤(+2.3%), 3,330만 톤(+4.9%) 늘었음
- BIMCO의 Peter Sand 수석 애널리스트는 2021년 건화물의 해상 수송량은 신기록을 달성할 것이며,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를 능가할 것이라고 예상함
 - 하지만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건화물 시장의 수송력 과잉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할 것이고 코로나19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

(中国远洋海运e刊, 2021. 1. 30.)

<https://mp.weixin.qq.com/s/i4ZwKnNsSJGuIBkZew0h0w>

산동항만, “일대일로” 및 RCEP 노선 집중 개통

- 2021년 1월 19일, 칭다오항 치옌완(前湾) 컨테이너 터미널에 3개의 “일대일로” 및 “RCEP” 노선이 신규로 개통됨
 - 이번에 개통된 3개 노선은 각각 EVERGREEN의 동남아노선(산동-말레이시아), WHL 및 INTERASIA의 베트남노선과 WHL/INTERASIA/ZIM/KMTC의 인도노선임
 - 특히, 베트남노선은 칭다오항에 처음 개통된 동남아 콜드체인 직항 익스프레스 노선으로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화물을 5일 내에 칭다오항으로 반입 가능함
- 현재 산동항은 전통적인 자원형 항만에서 생활자원형 항만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 중임
 - 이번 신규 개통된 노선들은 산동항만을 북방지역 생활소비재 물류센터로 구축하는 것을 촉진하고, 콜드체인 프리미엄 노선을 통해 동남아 생산품을 산동항의 배후지역으로 직배송하여 대중들의 식재료 수급을 더 풍부하게 할것으로 예상됨
- 지난해 체결된 RCEP 협정은 산동항만이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실현하는데 좋은 기회를 제공함
 - 2020년 산동항에는 18개의 국제 컨테이너 노선이 개통되었으며, 금번 3개 노선의 개통으로 산동항만의 글로벌 컨테이너 노선은 305개로 늘어남
 - 신규 노선의 지속적인 개통을 통해 산동항만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 RCEP 회원국과의 경제무역 교류를 촉진하는 해상 황금통로를 구축할 계획임
 - 이와 함께 산동항만은 2021년 대형 선사들과 함께 중요한 노선들을 보다 많이 개통하는 등 동북아국제해운허브센터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임
- 한편, 2020년 산동성항만그룹의 화물 처리량은 14억 톤, 컨테이너 물동량은 3,100만 TEU를 넘어섰고, 코로나19 기간에도 성장세를 이어가며 전국 연해 항만에서 상위권을 차지함

(中华航运网, 2021. 1. 20.)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101/t20210120_1348432.shtml

Ningbo Ocean Shipping사, 첫 동남아 컨테이너 정기노선 정식 개통

- 2021년 1월 22일 저장성 자싱(嘉兴) 차포(乍浦)항에 Ningbo Ocean Shipping사의 첫 일대일로 항로인 동남아 컨테이너 정기노선이 정식 개통됨
 - 금번 개통된 노선에는 1,100TEU급 선박이 투입되었으며 기항항은 자싱항, 닝보-저우산항, 호치민항임
- 1992년 설립된 Ningbo Ocean Shipping은 저장성 최대의 컨테이너 정기선사로 2020년 총 368만 TEU를 운송함
 - 닝보 세관에 따르면 2020년 미국, EU 및 아세안은 닝보의 3대 무역 파트너로, 닝보의 대외 무역 총액의 46.2%를 차지함
 - 특히, 2020년 닝보의 대 아세안 수출액은 1,079.5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0.5% 늘었음
- Ningbo Ocean Shipping의 금번 노선 개통으로 닝보-저우산항의 동남아 노선은 48개로 늘었으며, 닝보-저우산항의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중요 거점 입지가 보다 강화됨
 - 자싱항은 저장성 북측 지역의 교두보이며, 닝보-저우산항은 '일대일로'의 중요한 허브항임
 - 금번 노선의 개통으로 저장성 북측 지역의 많은 화주들은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저비용의 대외무역 물류 통로를 확보하게 됨
 - 또한 닝보 및 주변지역과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RCEP 회원국 간 교역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中国水运网, 2021. 1. 30.)

<http://www.zgsyb.com/news.html?aid=580233>

2021년 첫달 난사항 3번째 노선 개통

- 2021년 1월 21일 ‘RUN LONG’ 호 선박이 난사 3기 터미널에 접안함에 따라 SITC 중-베트남 익스프레스 노선인 SCV 노선이 성공적으로 개통됨
 - 금번 개통된 노선은 T.S.LINE 및 CMA CGM 그룹이 소유한 NCX3 노선, 그리고 ASEAN SEAS LINE 그룹이 개통한 BVX2 노선에 이어 난사항에 개통된 세 번째 베트남 직기항 노선임
- T.S.LINE 및 CMA CGM 그룹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NCX3 노선에는 1,700TEU급 선박 2척과 1,900TEU급 선박 1척이 투입됨
 - 기항 순서는 닝보-상하이-서코우(蛇口)-난사-후치민-서코우-홍콩-닝보 순이며 난사에서 후치민까지 수출에는 3일밖에 소요되지 않음
- ASEAN SEAS LINE 그룹 단독으로 운영하는 BVX2 노선은 난사-서코우-홍콩-하이퐁-난사 순으로 기항하고 있음
 - 난사에서 하이퐁까지 수출하는데 3일이 소요되며, 하이퐁에서 난사까지는 2일에 불과하여 안정적이고 빠른 서비스가 가능함
- SITC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SCV 노선의 기항 순서는 난사-서코우-홍콩-친저우(钦州)-하이퐁-난사 순임
 - SCV 노선은 난사에서 하이퐁까지 수출입 직기항 서비스를 제공하며, 난사에서 하이퐁까지의 기간은 3일에 불과함
 - SCV 노선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면 SITC는 주 3항차 노선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그렇게 되면 난사항의 하이퐁 직기항 노선은 11개로 늘어날 것임

(中国水运网, 2021. 1. 30.)

<http://www.zgsybn.com/news.html?aid=580332>

양산특수종합보세구 전 구역 세관 검수 통과

- 최근 양산특수종합보세구 2단계 보세구역이 세관 검수를 통과함에 따라 드디어 특수종합보세구 전체 구역이 검수에 통과됨
 - 검수 통과 후, COSCO 해운개발(中远海发), 중푸선잉(中复神鹰), 뤼양무예(洛阳钼业), 중창물류(中创物流) 등 20개 기업의 양산특수종합보세구 중점 프로젝트가 체결되었으며, 전체 프로젝트 규모는 약 105억 위안임
- 2020년 1월 국무원의 승인으로 설립된 양산특수종합보세구는 전국 유일의 특수종합보세구로 전체 계획면적은 25.31km²에 달함
 - 이 중 1단계 보세구역의 계획면적은 15.74km², 보세구역 면적은 14.27km²로 2020년 5월 12일 운영을 시작함
 - 2단계는 루차오항(芦潮港)의 남항구역과 푸둥공항의 남부구역을 포함하며 계획면적은 9.02km², 보세구역 면적은 8.09km²에 달함
- 향후 양산특수종합보세구는 제도혁신과 기능의 확장을 통해 “특수경제기능구” 및 “양산특수종합보세구”의 “쌍특” 구역으로 거듭날 것임
 - 또한 창장삼각주 일체화 발전을 견인하고, 상하이시의 국내 대순환 및 쌍순환 전략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상하이 린강신구(临港新片区)에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文汇报, 2021. 1. 20.)

<https://wenhui.whb.cn/third/baidu/202101/20/389004.html>

중국 동해항해보장센터, “연해입항 안내(동해해역)” 발행

- 2021년 1월 26일, 교통운수부 동해항해보장센터(东海航海保障中心)가 작성한 「중국연해입항 안내(동해해역)(中国沿海进港指南(东海海区))」가 정식 발행됨(이하 ‘입항안내’로 약칭함)
- ‘입항안내’는 항만 발전에 따른 항만 수역의 취항 환경 및 터미널 선석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연해 선박들의 항행 안전을 보장하고 항해자들이 보다 과학적이고 편리하게 해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됨
 - 중국은 항만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환보하이, 창장삼각주, 동남연해, 주장삼각주, 서남연해 구역의 5대 연해 항만군이 형성됨
 - 현재 중국 연해 항만에는 1만톤급 이상 선석이 2,500개 이상인 것으로 조사됨
- ‘입항안내’에는 중국 연해 항행 선박들이 상하이항, 닝보-저우산항, 뤰원강항 등 동해해역 24개 항만과 44개 항만 구역에 출입할 때 필요한 정보와 참고 사항들이 수록되어 있음
 - 중국 동해의 각 항만 수역과 관계된 최신 해도, 관련 법률 및 법규, 통행 관리, 예인, 특수항행 조건 및 수역 자연환경 등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음
- 동해항해보장센터(东海航海保障中心)의 상하이해도센터(上海海图中心)는 현재 「중국 연해 입항 안내」의 북방해역과 남해해역 버전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정식 발간 예정임

(中华航运, 2021. 1. 26.)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2101/t20210126_1348664.shtml